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

성경: 마 7:21, 12:50, 18:20, 엡 3:8, 골 1:12, 고전 14:26, 히 10:25

- I.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 히 10:25.

- II.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속생명을 제외하고는 교회 집회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고전 14:23-26.
 - A. ‘에클레시아’라는 헬리어 단어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이들의 집회 혹은 모임이다 — 마 18:17-20.
 1.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 곧 집합적인 한 백성의 집회이다.
 2.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이다 — 행 2:42, 8:1.
 3.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집회에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 엡 1:5, 롬 8:29, 고전 14:26.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이다 — 히 10:25, 고전 14:23-26.
 1. 우리가 받은 은혜 중 많은 부분이 집회 안에서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 중 많은 부분 역시 집회 안에서 하신 것이다 — 행 4:33, 13:1-2.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일의 많은 부분이 집회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히 10:25.

- III. 집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 시 73:16-17.
 - A.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 요 7:17.
 - B. 우리의 집회 중에 표면 아래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 C. 시편 작가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 시 73:16-17.
 1.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와 교회 안에 있다 — 엡 2:22, 딤후전 3:15.
 2.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3. 일단 성소 안에, 곧 영 안에와 교회 집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얻게 된다 — 시 73:16-20.
 4.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밝혀진다 — 시 73:17.
 - a.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와 집회 안에서 신성한 계시를 받는다 — 계 1:10, 엡 1:17-18.
 - b.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 — 시 73:17.

- IV.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며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 골 1:9, 15-18, 12, 3:4, 11, 고전 14:26.
- A.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 골 1:9, 15-18, 3:4, 11.
- B.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 고전 14:26.
- C. 합당한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람하는 교회 집회에 달려 있다 — 엡 3:8.
- D. 우리의 집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전람이다 — 고전 14:26, 비교 신 12:5-7, 13-14.
- E. 집회에서 우리는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 — 히 10:8-10, 25, 13:20-21.
- F.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골 1:12, 고전 14:26.
1.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믿는 이들이 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집회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관념이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쓸모없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술책이다.
- G.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봉사는 모이는 것이다 — 고전 12:4-11, 14-27, 히 10:25.
1. 교회 집회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이다 — 골 3:11.
 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위임을 받았다 — 마 7:21, 16:18, 엡 3:8, 골 1:12.
 3.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임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집회의 목적 이루세(영어 가사 직역)” — 영한 동번 찬송가 8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24장) 8절.
- V.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집회하는 길에 따라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 마 7:21, 12:50, 엡 4:16, 고전 14:26.
- A. 믿는 이들의 집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하며, 집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딤후 1:4, 엡 3:9, 고전 14:26.
- B. 주님의 생각에 따른 회복은 그분의 믿는 이들을 성직자-평신도 제도에서 이끌어 내고, 이 제도를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로 대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고전 14:26, 엡 4:12, 16.
- C.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상호성 가운데 있는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고전 14:4하, 24상, 26, 31.
1. 교회 집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고전 14:26.
 2.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을 누림으로써, 주님께에서 나온 무언가나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도록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한다 — 골 1:12, 엡 3:8.

4.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며, 또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서로 함께 나눌 것이다 — 고전 14:26.
 5. 교회 집회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고전 14:3-5, 12.
- D.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을 실행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탁월한 은사인 신언을 강조한다 — 고전 14:1, 4하, 24-25, 31.
1.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신언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 내며, 심지어 다른 이들 안으로 주님을 말해 넣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신성한 분배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모두 신언하는 것으로 완결된다 — 고전 14:3, 24-25, 31.
 2.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여 하나님을 말해 내는 것인 신언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 고전 14:25.
 3. 하나님은 믿는 이들 모두가 신언하기를, 즉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말해 내기를 갈망하신다 — 고전 14:1하, 31, 비교 민 11:29.
 4. 신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신언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특별한 은사이다 — 고전 14:3-5, 12, 24, 2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믿는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하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주저하며 뒤로 물러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다(6:19, 13:13).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옛 유대 종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집회가 지성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합당한 방식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모이는 것이다. 지성소는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다.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롬 8:34).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데(딤후 4:22),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다(참조 히 4:12, 16과 각주 2). 주님은 오늘날 삼층천에 계시므로 삼층천이 지성소이다(히 9:12, 비교 24절).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우리의 영도 지성소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집회 안에 계시므로 우리의 집회 또한 지성소이다(히 10:22, 25). 히브리 믿는 이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성소를 포기하고 종교적인 진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후에(32:8) 하나의 진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명목상으로 주님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했으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가 불가능한 종교적인 진영이 되었다. 모세는 그 진영이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 그 백성 가운데서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진영 안에 있는 그의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에 쳤다. 그때 이 천막이 하나님의 천막 곧 회막이 되었다(출 33:7). 만일 백성이 진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 안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가질 수 없었다. 주님의 임재는 더 이상 진영 안에 있지 않고 회막 안에 있었다(33:9).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진영이 된 유대 종교인들과 참성막이신 주님 사이에는 분리가 있었다(요 1:14, 2:19, 21).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참지성소는 그분께서 계신 곳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주변에 하나의 종교적인 조직, 즉 하나님의 지성소를 갖지 못한 옛 종교라는 진영이 있었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조직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니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에 따른 합당한 경배가 항상 성전 안에서 거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실지로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전에서 경배했던 분, 곧 하나님 자신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어떤 집에 가셨다(요 12:1-11). 그분께서 그 집에 계셨지만, 유대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셨는가, 아니면 베다니의 작은 집 안에 계셨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은 베다니의 작은 집 안에 계셨다. 하나님은 베다니의 그 집 안에 계셨으므로 그 집이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진영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마 23:38-24:2).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갈망이 있다면, 그 성전을 버리고 베다니의 그 작은 집으로 가야 했다. 그 작은 집이 지성소였다.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종교적인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야 한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낡고 종교적인 인간 조직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진영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머뭇거리고 방황하며 뒤로 물러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옛 종교와 옛 성전과 옛 종교 의식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명했다(6:19, 10:22, 13:13). 이 지성소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집회이다.

히브리서에서 지성소는 세 가지, 곧 삼층천과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의미한다. 우리가 합당하게 모일 때마다 우리의 집회는 지성소이다. 삼층천과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인의 집회, 이 셋 중에서 당신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가? 삼층천은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는 온종일 밤낮으로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체험에 따르면, 집회는 나를 주님 안에, 지성소 안에 있게 해 준다. 나는 어디에서도 집회에서만큼 주님의 임재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누릴 만하지만 지성소인 집회는 훨씬 더 좋고 더 높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열흘간의 훈련이나 특별 집회에 참석 한 후, 각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아닌 바깥뜰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열망할 것이다. 바로 이 체험은 바울이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만일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옛 종교 곧 그들의 이전 진영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했다.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하늘에 속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늘에 속한 지성소와 연결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집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중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가장 좋은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우리를 양육하고 강화하고 온전케 하고 빛 비춤으로써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집회는 놀라운 것이다!

신약에서 집회는 모임(마 18:20, 히 10:25)으로 언급된다. 믿는 이들의 모임인 집회는 혼합된 목적을 이루려는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 안에서 집회들은 자주 그 목적에 있어서 순수하지 않다. 믿는 이들의 집회는 순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된 목적을 가진 집회를 연다면, 주님의 임재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반드시 목적에 있어서 순수해야 한다. 집회의 본질 곧 성격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이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집회는 그 성격에 있어서 순수해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만을 수행해야 한다. 그럴 때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대한 아버지로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서 표현하실 수 있다.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집회가 참으로 순수한 것이다.

충만한 상호성을 가진

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말함에 있어서 상호성이 충만해야 한다(엡 5:19). 그리스도인의 집회에 상호성이 충만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지만 그러한 상호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오십 명이든, 백 명이든 백오십 명이든, 함께 모일 때 모두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은 집회 전체를 충만하게 하는 상호성을 창출한다. 각 사람이 자신의 분량에 따라, 한 사람이 일 분간 말하고, 또 한 사람이 삼십 초간 말하고, 또

한 사람이 오 분간 말하고, 또 한 사람이 팔 분간 말하고, 또 한 사람이 십 분간 말하는 식으로 실행한다면, 상호성이 충만한 집회가 산출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상태에까지 진보하고 자라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어떤 이는 오십 초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사 분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삼십 분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집회에서는 짤막한 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때로는 긴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짤막한 방식으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롭고 살아 있고 신선하고 높은 방식으로 아마도 사십 분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 누가복음 1장은 이것을 예시한다. 이 장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말이 있다. 엘리사벳이 말한 것의 기록이 가장 짧고(42-45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좀 더 길게 말했다(46-55절). 마지막으로 체험이 풍부한 사가랴가 가장 길게 말했다(68-79절).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말한 것은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고 모든 말에 풍성이 가득하다. 당신이 얼마나 길게 말해야 하는지는 당신의 영적 나이와 체험에 달려 있다. 당신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당신의 말의 내용과 길이를 결정한다. 만일 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짧게 말하고 그 집회가 상호성이 충만하다면, 집회에 처음 온 새로운 사람들이 굴복당할 것이다(고전 14:24-25). 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집회인지 물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와 같이 모두가 말하는 상호성으로 충만한 집회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가볍게 말하지 말고 무게 있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에 그다지 내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합당한 배움과 실행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성도들이 내용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만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살아 있고 무게 있는 말을 하기를 배우다면, 분명히 모든 교회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집회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감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를 배우되 가볍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연습을 요구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며 몇 절의 말씀을 읽고 누림으로써 주님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하며, 온종일 주님을 말해 내기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인격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합당하게 말하도록 우리를 조성해 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가든 담대함을 가질 뿐 아니라 말하는 실행과 습관도 가질 것이다. 만일 내가 한 교회를 방문하여 며칠간 머문다면,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말하는 데 중독되어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말해야 한다.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좋다. 말하는 습관과 입맛을 세우라.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그 유익을 가장 먼저 얻는다. 내가 말하고 있을 동안에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겠지만, 그 유익의 첫 열매를 얻는 것은 바로 나이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강한 이유이다. 말하기를 배우라.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당신을 약화시킨다. 그것은 한편으로 당신을 양육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양육하기는 하지만 자라지는 못하게 한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하고 말하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1장에 있는 내용의 각 항목을 말해 내는 것을 배우다면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과정들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책의 1장은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든 집회에서 일 년 동안 계속 말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나의 모든 저서의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남편은 이러한 것들을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야 한다. 나는 미국에서 거의 이십 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과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말해 왔고, 아직 이 주제를 다 끝내지 못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마치 미국의 소고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과 같다. 그 소고기는 똑같지만 요리하고 차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항상 말하기를 배우라. 달리 말해서, 똑같은 것을 항상 말하기를 배우라(고전 1:10). 집회에서 상호성이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말하는 것이다. 모두가 말할 때 그 집회는 상호성으로 충만할 것이다.

서로 관심하고 서로 권유함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말한다. ‘서로 관심하는 것’은 상호성을 시사한다. 나는 당신을 돌보고, 당신은 나를 돌본다. 이것이 상호성이다. 25절에서 서로 권유하는 것도 상호성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권유하는 것은 상호적이다. 그것은 한 방향만이 아니다. 25절에서 권유함과 관련된 ‘서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양방향의 왕래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예배에서는 권유가 대개 한 방향에서 온다. 곧 그러한 권유가 목사에게서 회중에게 가고, 다시 목사에게 되돌아가는 권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권유는 서로 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한다.

가르치고 권면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상호성 안에 있다(골 3:16). 우리는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한다. 때때로 자매들이 형제들을 권면할 수 있다. 자매들은 자신은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다. 그녀들은 가르치지 말고(딤후 2:12) 권면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권면한다. 우리는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므로, 나는 당신을 권면하고 당신은 나를 권면한다.

과거에 나는 기독교의 어떤 교사들이 여자는 교회 집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교사들은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1963년에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어느 날 성경을 잘 아는 한 형제가 우리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자매들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을 관찰하고서 나에게 왜 자매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는지 물었다. 그는 자매들은 잠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질문에 나는 그의 집회에서는 자매들이 침묵을 지키는지 되물었다. 그는 자매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자매들이 그의 집회에서 찬송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찬송하는 것도 일종의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달리 말해서, 자매들이 그의 집회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자매들에게 찬송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이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자매들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지만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따르면, 여자들은 집회에서 기도하고 신언할 수 있지만, 형제들의 덮음 아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자매들은 교회 집회에서 해방을 받아 말해야 한다. 자매들은 말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다. 자매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하지만, 권하고 권면할 수 있다. 많은 때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들을 더 잘 권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매들은 대체로 권면할 때 아주 능숙하다. 이것은 자매들이 거칠지 않고 섬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형제들은 거칠 수 있다. 형제들이 ‘아멘’ 할 때 그것은 매우 거칠 수 있지만, 반면 자매들이 ‘아멘’ 할 때 그것은 마치 음악과 같이 우리의 귀에 아주 유쾌하다. 권면하는 것은 섬세한 일이므로, 때로 형제들은 권면하기가 매우 어렵다. 형제로서 나에게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주 쉽다. 그러나 나는 어떤 자매들처럼 잘 권면하지 못할 수 있다. 형제들이 권면할 때는 성도들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랑스러운 자매가 와서 권면할 때는 모두가 듣고 순종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예시한다. 자매들은 말하되 가르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좋다.

모든 자매들은 말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많은 자매들이 형제들의 통제가 아니라 그녀들 자신의 통제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많은 자매들이 그녀들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한다. 자매들이 조용하고 상냥하고 온순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나는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감상한다. 그러나 나는 자매들의 입이 집회에서 닫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매들은 상냥하고 온순할 필요가 있지만 말을 해야 한다.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높은 대가를 지불함

믿는 이들의 집회의 이러한 특징들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이 표준에 힘써 이름으로써 우리의 집회가 합당한 특징들을 지닌 집회로 혁신되게 해야 한다. 일단 우리의 집회가 옛 길에서 새 길로 전환된다면, 주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에 일치하는 어떤 것을 갖게 되실 것이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집회와 봉사의 성경적인 길, 61-71쪽)